

불교산업 점검 1 - 불교문화콘텐츠산업

문제점도 해결방안도 '말로만'

대표적 콘텐츠, 템플스테이·사찰음식·출판... 불교문화 바른 인식·실천 통한 개선 나서야

불교산업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좋은 수단이다. 또한 산업 발전으로 인한 수익은 불교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온다. 본지는 3회에 걸쳐 불교산업에 대한 현황과 나아갈 길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불교문화콘텐츠 산업의 대표 주자는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 출판 등이다.

이들은 한국불교의 원형을 현대적으로 포장해 불자는 물론이고 무종교인 및 일반 국민들에게 불교의 정신과 가치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템플스테이= 현재 템플스테이는 전국적으로 120여 곳에서 실시되고 있다. 외국인들의 참가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신종플루와 세계경제 침체로 증가세가 주춤했던 2009년을 제외하고는 2004년 이후 매년 40% 씩 늘어나고 있다.

템플스테이의 성공 요소로는 참가자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를 가진 사찰의 적극적인 참여와 숙박 등 시설 확충, 자원봉사자, 통역 등 전문 인력 확보가 꼽힌다. 또한 갈수록 다양화, 세분화되는 참가자들의 욕구를 반영해 사찰별로 특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외국인들을 위한 통역 자원봉사자 확충



외국인들이 2005년 중국사 템플스테이에 참가해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있다.

도 시급한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템플스테이사업단 관계자는 "수용 능력 해결을 위해 거점센터 지정을 추진한다. 거점센터는 지정사찰이 수행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불교문화 대중화와 템플스테이 수요 증대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한다. 통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내 통역 및 문화해설사 봉사자와 연계해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사찰음식= 대중화를 위한 지나친 퓨전은 사찰음식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항상 제기돼왔다. 사찰음식은 현재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으면서 정체성은 상실되고 수행을 위한 도구로서 사찰 음식의 정체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선재 사찰음식 연구원 원장 선재 스님도 2009년 한 세미나에서 "국적 불명의 사찰음식, 일반인들의 사찰음식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계종도 사찰음식 발전을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009년 5~12월 까지 대전·충청지역 사찰음식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사찰음식 순례>를 발간했다. 당시 문화부장 호탄 스님은 "사찰음식 발전을 위해 전국 사찰음식의 종류와 제조, 전송 등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제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출판= 불교출판의 영세성과 불황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문제다. 불교 출판계는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의 하나로 불교계의 독서부족 현상을 꼽는다.

더구나 재가자들에게 책을 권하는 스님은 좀처럼 찾아보기 쉽지 않다.

한 출판사의 종교서적팀 관계자는 "개신교의 경우 목사님들이 신도들에게 책을 많이 권한다. 그렇게 권한 책들은 급속한 판매량 증가를 보인다"며 출판 활성화를 위한 독서풍토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창하 민족사 대표는 "출판도 불교 문화도 스님들이 먼저 변화야 한다. 스님들이 불교문화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추고 그 속에서 실천할 때 불교문화는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기범·노덕현 기자

특별기고 I

불교문화콘텐츠 산업을 위한 제언

불교는 무궁무진한 콘텐츠 창작의 보물창고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언제나 전통문화라는 우월감에 사로잡혀 시대에 늘 더디게 뒤쫓아 간다고 한다. 불교문화콘텐츠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가 다양한 매체나 기기를 통해 불교와 함께 할 수 있게 불교문화에 숨결을 불어 넣는 선교방편(善巧方便)이다.

현재 청소년들을 'TGIF세대'라고 한다. 트위터(Twitter), 구글(Google), 아이폰(i-phone), 페이스북(Facebook)의 첫 글자를 딴 말로 소셜 네트워크를 자유롭게 활용하며 살아가는 모바일 인터넷 시대를 주도하는 세대이다. 불교문화콘텐츠는 현 시대 사회와 대중에게 불교를 알리고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소통의 방법이다. 또한 우리의 시대정신과 창의적인 상상력을 담아내고 공감하는 문화 그 자체이다.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문화 소비의 대상으로만 여기던 소비지향 단계를 뛰어 넘어, 문화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체험과 소통을 통해 자아 발견과 성숙을 지향하는 문화적 성숙 단계에 다가서고 있다. 이는 불교적 지향과 그 맥락이 통하는 지점이다. 특히 2011년 3월 스마트폰 가입자 1000만명을 돌파했고, 올 연말 2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스마트폰 빅뱅에 접어들면서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새로운 미디어 특성에 맞는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갖춘 새로운 콘텐츠가 확장돼야 할 것이다.

불교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쌍방향 네트워크와 프로슈머 양상을 통한 문화시장이 형성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불교종단이 이를 위한 시스템, 네트워크,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첫째, 불교문화콘텐츠 진흥의 기반을 이끄는 (가)불교문화콘텐츠진흥센터와 같은 구심점이 마련돼야 한다. 종단이 앞장서서 불교계가 가진 문화적 자산을 제대로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뉴미디어 환경을 앞서가는 문화적 혁신이 필요하다. 이러한 혁신을 선도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불교의 미래를 이끌어야 한다.

둘째, 불교문화콘텐츠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불교문화콘텐츠 진흥에 관련된 일들을 종단이 모두 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 현재의 흩어져 있는 불교문화콘텐츠 역

량을 모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해야 한다. 종단과 관련기관의 조직 네트워크, 학계 연구자 산업계 개발자 간 인적 네트워크, 산업계 불교계 문화조직의 인프라 네트워크가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불교문화콘텐츠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타종교계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 포교는 물론 신도 교육과 대중적 이미지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각종 불교문화콘텐츠 창작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고 불교문화콘텐츠 관련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이 시급하다.

다음으로 학계에서는 인재양성과 아카이브 구축이 필요하다. 종합대학을 비롯한 학계에서는 불교문화와 관련한 연구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 또한 불교문화콘텐츠 관련 열린 정보 서비스체계로써의 불교문화 아카이브가 구축돼야 한다. 기존의 연구 역량과 문화콘텐츠 창작의 원천이 되는 원천자료 등을 누구나 쉽게 다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행히 동국대 불교학술원과 같은 학술연구조직이 마련되어 한국불교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지니고 있다. 학계에서 불교가 지닌 문화유산, 기록유산에 대한 수집과 학술연구를 통한 결과물이 원천자료의 형태로 서비스될 수 있는 체계로서의 아카이브로 학계와 종단, 산업계의 소통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불교문화콘텐츠를 통해 종단과 불교계는 불교문화의 보물창고를 열어 서 인간 내면의 참된 행복과 여유로움을 키워주는 '불교'라는 '종교성'의 깊이를 더해 주시고, 학계에서는 문화콘텐츠 창작의 원천자료를 연구하고 서비스해 '문화'의 '공공성'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며, 불교에 관심있는 창조적인 개인과 산업계는 시대와 불교가 만날 수 있는 '콘텐츠'로 '대중성'의 가치를 무한히 확장시켜 주신다면 소통과 선순환 구조가 되는 불교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의 미래가 밝을 것이다.

동국대 전자불교문화콘텐츠연구소
전임연구원 이재수

특별기고 II

수익사업 확대로 통 큰 자비정신 실천을

불교계의 수익사업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템플스테이입니다. 하지만 템플스테이는 수익성 사업이라고 보다 일반인들에게 불교에 대한 거리감을 줄여주는 수단으로서 활용되는 측면이 더 강합니다.

그밖에 불교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업 영역은 크게 친환경 부분과 실버 부분일 것입니다. 이는 불교계가 태생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장점을 최근의 사회적 이슈와 접목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관련 사업은 녹색산업과 함께 최근 정부가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대부분의 대형 사찰들은 사찰 주변에 비교적 넓은 면적의 대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찰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찰림이나 사찰휴경지를 이용하여 사업화한다면 멋진 수목원이나 생태공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많은 예산

투자 없이 기존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충분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 낼 수 있는 분야입니다. 사찰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생태공원이나 수목원을 조성한다면 시장성은 충분할 것입니다. 식음료 사업도 고려해 볼 만한 분야입니다. 깨끗하고 순수함을 강조한 천일염사업, 연꽃차나 국화차 등 전통 차 제조업 그리고 곡자를 상품화해 새로운 형태의 주종을 창출해 내는 것도 수익사업의 한 영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실버산업은 또한 불교계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자원을 활용하고 철학적 접근성이 근접한 분야입니다. 의료 사업은 동국대 한의대와 산학협력을 통해 안티에이징이나 웰에이징할 수 있는 다양한 약품개발이 가능할 것이며 건설업과 관

련해서는 사찰 부근 휴경지를 활용한 실버타운 설립도 가능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수익사업에 대한 기획이나 시행이 개별사찰 차원이 아닌 중앙종단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불교계에서 이루어지는 수익사업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존재해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업무 추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표준화가 가능해 일반 소비자들의 이용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단 중앙종단 차원에서 별도의 법인 설립이 우선돼야 합니다. 지주회사 성격의 수익사업을 총괄하는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 영역에 따라 별도의 자회사를 만들어 운영해야 합니다. 이 같은 관계회사 체제는 제품의 표준화를 이끌어 소비자의 신뢰를 증대시킬 수 있으

며 회사간 자원의 적절한 배분을 통해 비용의 최적화를 추구할 수 있고 생산체제의 대형화를 이끌어 규모에 경제 효과도 향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상호회사에서 시작하여 보험사, 증권사에 이르는 금융업으로의 진출도 고려해볼 만 합니다. 농협이나 우체국, 사학연구 등 구성원의 상호부조를 위해 설립된 기관들이 공제 사업으로 시작해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보험업으로 업무확장을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권업으로까지 진출하는 상황을 벤치마크 하는 것도 불교계의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아이디어와 체계적 관리 시행으로 불교계의 수익사업이 현실화 되어 좋은 성과를 달성하기를 기대합니다.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이준서

영남범패 회원스님 초청

제4회 무심사 낙동강 수륙재 대법회 및 경로잔치

봉

귀의 삼보하옵고,
매년 무심사에서 년중 행사로 실시하는 수륙대제(불과 육지에서 해매는 영혼과 아귀를 위로하기 위하여 불법을 강설하고 음식을 베푸는 불교의식)를
영남범패 회원 스님을 특별히 모시고 성대하게 거행하고자 합니다. 공덕 중에 으뜸 수륙대제
귀한 법석에 수회 동참하시어 선망부모 조상인연 영가천도하시어 무량공덕 쌓으시길 바랍니다.

축

일 시 : 2011년 4월 24일(일요일) 10시

장 소 : 무심사

* 영가위패 올리실 분 천도 동참자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영가 1위당 : 5,000원)

* 식전후 행사 : 영남풍물단 공연, 국악공연, 민요가수 다수 출연

신묘년 4.8(초파일) 석가탄신일 봉축기념법회

일 시 : 2011년 5월 10일(화요일) 10시

장 소 : 무심사

* 연등접수 받습니다.

* 매주 토요일 천수다라니 철야정진 기도 및 방생도량

● 안내전화 : 053)616-8080, 055)532-0408, 010-9898-0108

● 계좌번호 : 농협 702058-51-003978 (예금주: 무심사)

▶ 찾아오시는길 (네비게이션주소) 대구 달성군 구지면 대암2리 810번지

무심사 주지 무심 합장

대한불교대승종

제3기 승려 기본교육

1988년에 창종하여 24년간 대승불교의 근부취지를 추구해 온 본 종단에서는
입종 예정자를 위한 기본 교육을 아래와 같이 병행하오니
초보자, 전종 및 입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아 래 -

기 간 : 2011년 5월 21일(토) ~ 2011년 6월 19일(일) (토,일 / 4주간)

과 목 : 예불, 불공, 법기실수, 초발심자경문, 사찰경영 외 기본교육

장 소 : 북한산 도봉사 도봉선원 (천년고찰)

접 수 :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 (02-952-1074 / 010-7273-1074)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042-271-3754 / 011-9704-3247)

지 원 서 : 대승종 카페참조

마 감 : 2011년 5월 3일까지 소인 유료

* 출가를 원하시는 불자 및 초심자 기초과정은 의식교육 수료 후 중현종법에 따른 특별승려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불기 2555(2011)년 4월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

http://cafe.daum.net/daeseungjong

서울 성북구 돈암동 15-1 삼성 B상가 303호